

COVID-19 두려움, 백신수용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COVID-19 Fear, Vaccine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Na-Rae Ba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 두려움 수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타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상당히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주제어 : COVID-19, 삶의 질, 건강, 위기개입, 백신수용성, COVID-19 두려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preparing specific welfare measures for healthy lives of those who have lost vitality due to COVID-19 by identifying the Korean people's level of fear of COVID-19 and vaccine acceptability, and by examining people's life satisfaction. .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ear of coronavirus perceived by the survey subjects was found to be very high. Second, when compared to other vaccines against coronavirus, fear or fear of the vaccine was significantly higher. Third, the vaccine acceptance of adults perceived by the survey subjects was positive. Fourth,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coronavirus prevention vaccine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Fifth, i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economic satisfaction was lower than in other areas, and emotion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areas.

Key Words : COVID-19, Quality of Life, Health, Crisis Intervention, Vaccine Acceptance, COVID-19 Fear

1. 서론

21세기 이후 전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COVID-19는 현재에도 감염자 확산을 지속하고 있는 인류에게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COVID-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020년 3월 11일에는

감염병의 최고 위험 단계인 Pandemic(팬데믹)을 선언 [1]하였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COVID-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전 세계에서 총 281,184,924명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5,406,357명으로 보고하였다. COVID-19의 정식 명칭은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COVID-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victory0302@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2,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January 3, 2022

Published January 28, 2022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 COVID-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인 감기와 같이 감염이 매우 쉽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전염병이나 치명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OVID-19 바이러스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등 위험도가 높아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이다. 2022년 1월 5일 기준으로 80대 이상 치명률은 13.94%, 70대 4.07%, 60대 6.99%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COVID-19로 인한 치명률은 높았다. 반면 50대 0.30%, 40대 0.08%, 30대 0.04%로 나타나 중장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치명률이 낮았다[2].

COVID-19 바이러스는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오미크론형까지 역대 바이러스와 비교하였을 때 다양하게 변이를 하고 있다[2].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는 달리 전염병 상황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어짐에 따라 전 세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측면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보건 문제와 경제 타격 문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큰 갈등과 논란을 빚으며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으며, 60-74세 연령은 2020년 5월 6일부터 연령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였다[4]. 실시된 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COVID-19 백신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표하였다. COVID-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제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13]. 사람들이 느끼는 COVID-19 스트레스 수준(3.7)을 과거 우리가 경험한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2.5점)의 1.5배,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2.7점)의 1.4배로 나타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3.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1].

COVID-19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부 정책의 불신이 커지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며 온 국민의 스트레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COVID-19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 나라는 발생 초기부터 백신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에 뛰어 들었고 그 결과 채 일년이 걸리지 않아 COVID-19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후 백신사용승인도 초고속작전으로 진행되어 전세계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성이나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3]. COVID-19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견된 이후 개발되어 안타깝게도 백신의 예방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COVID-19 백신 접종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월 3일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86.2%가 완료 하였으며, 2차 접종은 83.0%가 접종을 완료 하였다[3].

COVID-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COVID-19에 대한 백신수용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이 백신 수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화된 COVID-19가 우리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1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에 관한 두려움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백신수용성과의 관련성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COVID-19 확산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나 실제 백신을 거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에 대한 두려움 수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OVID-19의 두려움

불안의 반응 중에 하나인 두려움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표출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정서이다[6].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며 구체적

이다. 인간의 두려움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위험 및 정서적 위험 등에 직면했을 때도 나타난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신종 전염병 COVID-19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된 신종전염병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정확히 조사되어지지 않은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두려움 크기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3].

COVID-19에 따른 두려움은 신체적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행동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난다[7]. 신종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등에 시달리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11,12]

현재 4차 유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COVID-19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백신수용성

백신이란 사람들의 신체에 항원을 노출시켜 면역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수용성(Acceptability)이란 각 개체가 어떤 상황을 독특하게 경험하면서 합의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COVID-19 백신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백신의 경우 접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수용성에 의하여 좌우된다[3]. 백신의 수용성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 의사 정도를 말한다. 백신의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백신에 대한 접종거부나 접종지연으로 이어진다. 백신의 수용도는 병원체나 백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신념과 같은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4-15].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백신의 잠재적인 부작용,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믿음, 음모론을 믿는 태도 등이 백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COVID-19 백신의 수용성으로 이어진다. 다만,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백신 접종이라는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COVID-19 감염, 전이,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

보 또는 지식이 필요하며 그들의 정보와 지식이 올바르지 않을때는 백신접종의 수용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8-11].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 백신의 수용성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백신에 대한 태도 및 신념, COVID-19에 대한 관련 지식 정도, COVID-19에 관한 경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14,15]. 기존에 나온 백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국가적 혜택이었으며 이밖에도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높이고, 백신의 안전성을 전파하는 것이다[15].

이처럼 성인의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인구학적 특성, COVID-19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한 태도 및 신념 등 최초 정보 원천자로서의 긍정적인 추천이나 신뢰성, COVID-19의 지식에 대한 성인의 정확한 이해 및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바라보는 관련 경험의 차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COVID-19로 인한 두려움,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성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역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160부 중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하고 155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2021년 9월1일~2021년 9월30일까지 진행하였다.

COVID-19의 일반적인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척도는 성미현 외[5]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친 도구를 활용하였다. COVID-19 백신과 다른 백신과 비교한 두려움 정도 1문항, COVID-19 백신 수용성(Vaccination Acceptance) 6문항,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1문항, 삶의 질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성 29.0%, 여성 71.0%로 조사대상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다. 연령은 20대 19.4%, 30

대 35.5%, 40대 25.8%, 50대 16.1%, 60대 이상 3.2%로 나타나 응답자는 30대와 40대가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6세이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3.2%, 전문대학교 졸업 3.2%, 대학교 졸업 71.0%, 대학원 재학 3.2%,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19.4%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는 대학교 졸업자가 다수였다. 혼인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혼 38.7%, 기혼 61.3%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45.2%, 개신교 12.9%, 불교 29.0%, 천주교 12.9%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Sex	Male	45(29.0)
	Female	110(71.0)
Age	20's	30(19.4)
	30's	55(35.5)
	40's	40(25.8)
	50's	25(16.1)
	over 60	5(3.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5(3.2)
	Associate Degree	5(3.3)
	Bachelor Degree	110(71.0)
	Attending Graduate School	5(3.2)
	Over Master's Degree	30(19.4)
Marital Status	Single	60(38.7)
	Married	95(61.3)
Religion	No religion	70(45.2)
	Protestantism	20(12.9)
	Buddhism	45(29.0)
	Catholic	20(12.9)

4.2 COVID-19 두려움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COVID-19의 두려움은 Table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3.23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3.58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편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3.26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에 대해 두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이 되고 불안해진다'는 3.32점으로 대중매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

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손이 축축해진다'는 1.61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어 잠을 잘수가 없다'는 1.68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생각하면 심장 뛰거나 두근거린다'는 1.74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감은 크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증상이나 생활적 불안정상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VID-19 Fear

Variable	M(SD)
I am most afraid of COVID-19	3.23(1.04)
It's uncomfortable to think about COVID-19	3.58(1.07)
When I think of COVID-19, I get cold sweats	1.61(0.83)
I am afraid of losing my life from COVID-19	3.26(1.44)
When you hear news or stories about COVID-19 in the media, you feel nervous or anxious	3.32(1.15)
I can't sleep because I'm worried about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68(0.86)
When I think of the corona virus 19 infection, my heart is pounding and pounding	1.74(1.02)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다른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Table 3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7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Fear Difference between the COVID-19 Vaccine and other Vaccines

Variable	M(SD)
What are the fears of the coronavirus vaccine compared to other vaccines?	3.77(0.87)

4.3 백신수용도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Table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백신이 있다면'의 질문에 4.06점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태도'는 3.61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족이나 친지가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4.03점으로 백신접종을 강하게 권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해 3.68점으로 백신접종 의향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평가'에 대해 4.26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수용성'은 3.58점으로 백신 수용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Vaccine Acceptance

Variable	M(SD)
If a vaccine to treat COVID-19 is available, would you vaccinate?	4.06(0.92)
If you could describe your attitude towards COVID-19 vaccination in words, what would it be?	3.61(1.01)
If your family or friends are thinking about getting a COVID-19 vaccine, what would you do?	4.03(1.00)
What is your intention to vaccinate against COVID-19?	3.68(1.12)
What do you think of your COVID-19 vaccination?	4.26(0.80)
How is the coronavirus vaccine acceptable?	3.58(0.94)

4.4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Table 5에서 설명하였다.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3.1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점수 이상이며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Government Trust in Coronavirus Vaccine

Variable	M(SD)
What is the government's confidence in the coronavirus vaccine?	3.16(0.99)

4.5 삶의 질

삶의 질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상태, 정서적 상태로 Table 6에서 살펴보았다. 신체적 만족도는 3.48점, 경제적 만족도 3.10점, 정서적 만족도 3.77점, 사회적 만족도 3.58점으로 나타나 만족도 중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COVID-19는 경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는 가족 중심적인 삶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어 정서적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

로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신체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Table 6. Quality of Life

Variable	M(SD)
Physical Satisfaction	3.48(1.11)
Economic Satisfaction	3.10(1.03)
Emotional Satisfaction	3.77(0.83)
Social Satisfaction	3.58(0.95)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 두려움 수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타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상당히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개인들의 백신 두려움을 줄이고 백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 대한 합리적 결과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COVID-19 백신은 예방적이고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합리적인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혹은 높은 백신 접종율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공공 캠페인이 개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도 또는 수용성 증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정부의 백신 정책이나 백신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계획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COVID-19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건강신념이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COVID-19의 장기화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로 COVID-19 시대에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축적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COVID-19와 같은 장기화되고, 변인율이 높은 전염병과 관련한 조사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건강행위 실천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연구의 한계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대상을 표본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COVID-19 두려움과 백신수용성 및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 있는 연구가 지속 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표본양을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COVID-19와 삶의 질 대한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COVID-19 백신수용성과 삶의 질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E. H. Lee.(2020). Corona 19 Generation, How is mental health. Gyeonggi: *Issues & Diagnosis*, 414, 1-25.
-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3] S. J. Hwang, J. A. Gil & S. K. Choi. (2021). Vaccination Acceptance for COVID-19: Implications of Trust in Governmen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4(2), 95-120.
DOI : 10.31693/KJPS.2021.06.44.2.95.
- [4] COVID-19 Vaccination. <https://ncv.kdca.go.kr/>
- [5] M. H. Seong, I. S. Kim, M. R. Kang & M. S. Lee. (2020). Validi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COVID-19 Sc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391-399.
DOI : 10.21097/ksw.2020.11.15.4.391
- [6] J. H. Seok, S. J. Kim & C. H. Kim. (2005). The Neurobiology of Anxiety. *Anxiety and Mood*, 1(1), 7-13.
- [7]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 J. Y. Kim.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DOI : 10.23844/kjcp.2020.11.32.4.2119
- [8] N. R. Bae & C. S. Park.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779.
- [9] H. K. Kwon & M. H. Seong. (2021). Effects of COVID-19 Fear, Anxiety, and Depress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4), 1303-1318.
- [10] S. E. Kim. (2020). 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423-431.
DOI : 10.15207/JKCS.2020.11.6.423
- [11] N. R. Bae & J. W. Kim. (2021). Study on Experienc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1), 301-310.
DOI : 10.15207/JKCS.2021.12.11.301
- [12] N. R. Bae. (2021). A Study on COVID-19 and Changes in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2), 281-286.
DOI : 10.15207/JKCS.2021.12.12.281
- [13] D. H. Lee, Y. J. Kim, D. H. Kim, H. H. Whang, S. G. Nam & J. Y. Kim.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 [14] M. C. Navin, J. A. Wassrman, M. Ahmad & S. Bies. (2019). Vaccine education, reasons for refusal and vaccination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6(3), 359-367.
- [15] H. I. Lee. (2020). *A Study on the COVID 19 Vaccination Intention Surve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배 나 래(Na-Rae Bae)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복지융합
- E-Mail : victory0302@kycu.ac.kr